

강진군, 스마트 관수시스템 도입 농가 경영 '보탬'

기상데이터 실시간 분석 정밀 관리
생산효율성 향상 경영비 절감 목표
물·비료 사용 감축 작업편의성 증대
휴대폰 정보 전달 실시간 모니터링

강진군의 올해 시범사업인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이 현장 실증 결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스마트 시설 장비 확산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작전면 오기종(45)씨가 운영하는 1.7ha 규모의 단동하우스(30동) 업체를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생산 효율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했다.

스마트 관수시스템 기술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시범 보급하는 기술로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

물의 생육 상태에 맞춰 물과 비료 공급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물과 비료 사용을 크게 줄이면서 작업편의성은 크게 늘렸고 생산성까지 높이는 일석 삼조의 성과를 얻었다.

스마트 관수시스템은 휴대폰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 경작자가 기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 장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입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061-430-3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한 오씨는 "스마트 관수시스템 덕분에 관수작업 부담이 줄었고 작물 생육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날로 발전해 가는 농업 장비와 스마트팜 시스템을 실증해 보고 관내 농업인들이

편리함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기술은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공연 개최 내달 21일 해남군문화회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다음달 21일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공연이 열린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새롭게 해석한 이번 공연은 원작이 지닌 희망과 투쟁, 사랑과 용서 이야기를 현대 발레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댄스이터사하르 창단 2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안무가 지우영의 독창적인 안무로 구성되었다.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 강준하가 장발장을 맡아 열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가수 스테파니와 댄싱9의 정민찬이 각각 코제트와 마리우스 역할을 맡아 극적인 감정을 무대에서 연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연은 21일 오후 2시와 7시, 2차례로 진행되며 관람료는 1만원(해남군민 5000원)이다.

예매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해남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시작하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매(061-530-5137)도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작을 전막 발레로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연으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기념전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31일부터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기념 전시회 '월출산, 달이 피다'와 정승원 작가 초대전 '동화가 된 일상'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영암과 남도를 대표하는 중견작가 7인이 월출산과 달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감동을 전한다.

분출하는 산의 기운을 그린 송필용, 산의 신비와 송고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류재용, 여운에서 바라본 남도의 풍경을 담은 하성흡, 바위산 골짜기마다의 신비를 담아낸 정선휘, 개신리에서 바라본 장엄함을 표현한 박성우, 달빛에 비친 바위산을 소개한 조병연, 구정봉에 담긴 민중의 염원을 전달한 이상호 작가가 전시에 참여한다.

창작교육관에서는 청년작가 정승원이 독일 유학의 추억을 북유럽 색채와 동화적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귀국 후 일상이 주는 긍정과 행복의 기억을 한국의 소재로 표현한 작품, 일상의 소재로 꾸민 다양한 작업도 선보인다.

작가가 아이를 키우며 바라본 놀이터 풍경을 담아낸 연작, 호랑이 전래동화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낸 그림은 관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관 2전시실에서는 정승원 전시와 연결해 가족 단위 관람객이 미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아트놀이터가 운영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강진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1423필지에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1004카페 하의점 문 열어 신안군,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신안군은 지난 29일 박우량 신안군수, 최미숙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갖고 하의 여객선터미널 2층에 문화 및 휴게공간 '1004카페 하의점'을 개점했다고 30일 밝혔다.

카페 공간은 신안군 자활기금 1200만원, 중앙자산기금펀드 2400만원을 지원받아 커피머신, 장비 등을 설치했다. 운영은 다문화 이주여성과 저소득층 주민 2명에게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여 카페 인력으로 참여하게 했다.

'1004카페 하의점'은 섬을 입도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여객터미널 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의미가 색다르다. 조성된 공간은 지역주민의 소통 및 힐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목포해경 관계자들이 영광군 가마미 해변 일원에서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목포해경, 영광 가마미 해변서 합동 해안방제 훈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와 영광군이 지난 29일 영광군 가마미 해변에서 전남도, 해양환경공단, 수협, 해양자율방제대, 자원봉사자 등 16개 유관기관·단체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3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오염사고 시 해안에 부착된 기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해경과 지자체 간 방제기술을 공유하고 사고대

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목포해경은 항해 중 충돌한 화물선과 유조선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가마미 해변으로 기름이 밀려간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했다.

해안방제 훈련은 해안오염조사를 시작으로 지휘소 설치 및 안전교육→해안방제 작업폐기물 관리·처리→현장정리·해안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류수거 1대, 세척기 4대, 트랙터 1대가 동원됐

다.

해안방제 작업은 구획별 유류오염 상황에 따라 고압세척기를 활용한 암반지역 방제, 저압세척기를 활용한 자갈지역의 오염물질 제거, 중장비를 활용한 모래 해변 방제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구분해 이뤄져 실전성을 높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훈련을 통해 방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갯벌낙지 축제 성황

빨낙지 삼겹살볶음 등 신메뉴 선보

무안군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무안을 빨낙지 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 2024 무안갯벌낙지 축제가 관광객과 지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마무리됐다.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4 무안갯벌 개막행사로 '무안갯벌낙지 1454' 개막선언 퍼포먼스를 통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토산품으로 진상하기 시작한 무안낙지의 오랜 역사성과 상품성을

널리 알렸다.

갯 부화한 낙지를 전시한 낙지 생애 전시회장, 낙지 경매·낙지 잡기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무안낙지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어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제철 수산물(전어, 새우, 민물장어 등) 시식 및 홍보 판매로 무안의 다양한 수산물을 알리고 낙지요리의 다양화를 위해 진행한 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신메뉴(빨낙지 삼겹살볶음 등)를 1만원 대로 판매해 낙지요리 다변화에 기여했다.

연계 행사로 진행된 무안의 대표적인 가을 농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각종 제품 홍보와 판매, 고구마 캐기, 주금순 명인과 함께하는 무안갯벌낙지 쿡킹클래스는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으로 진행된 군민가요제에서는 9개 읍·면 주민들의 노래경연이 펼쳐져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군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노력해주신 군민과 관광객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무안낙지가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